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 시장 육성

지경부, 동력부품·새시·경량소재 대상 ... 시장규모 5조원으로

2016년까지 클린 디젤자동차의 부품산업이 5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산업으로 육성된다.

지식경제부는 클린디젤 자동차의 핵심부품 산업을 키우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고 8월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클린디젤 자동차의 동력발생 부품 외에 동력전달 부품, 새시·경량소재 부품, 전후처리·엔진부대 부품, 하이브리드 부품, 생산기반 등 6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전문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까지 전문기업 100곳을 육성해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산업을 생산액 5조원, 수출액 30억달러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클린디젤 자동차의 핵심부품과 제어기술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태희 지경부 주력산업국장은 “클린디젤 자동차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열효율이 높지만,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25% 정도 적다”며 “전기나 연료전지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배출가스 규제와 기후변화협약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린자동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완성차기업과 연계된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24>